광주시교육청,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학교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은 지난 24일 소강당에서 광주교육협치위원회 분과회의 위원, 교직원 및 시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학교'를 운영했다. 〈사진〉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학교'는 교육 협치를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안군 문화도시지원센터 김근하 사무국장이 '신안 1000개의 섬, 1000개의 문화'를 주제로 신안군의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한 협치 사례를 공유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농공단지협의회, 2025년 임원 워크숍 성료

전남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성규)는 지난 20·21일 보성 다비치콘도 일원에서 2025년 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 임원 및 이사 50여 명이 참석해 도내 농공단지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취·창업,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성규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임원 워크숍을 계기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원진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TBN 광주교통방송과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광주교통방송과 '재난대응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로 홍수·가뭄 등 극한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댐 수문 방류, 재난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물 절약·홍수기 국민행동지침 등 공익 캠페인 방송 제작, 교통방송 제작, 재난 대응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어르신 초청 과학 행사 개최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어르신 30여 명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제2회 손주에게 알려주고 싶은 과학'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과학해설사의 안내로 댄스로봇 공연과 과학실험쇼를 관람한 뒤 상설전시관을 돌며 여러 가지 과학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지난 23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순천시·고흥군과 함께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고흥을 중심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국방·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남도, 국방·우주 분야 전문가, 산업계, 연구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대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학과장 고대식)의 김수진, 김재영, 이은수 학생이 최근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특별경연(응급구조학과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호남대 제공〉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중계방송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	00 중계방송 대통령 시정연설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00 열린채널	1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노무사 노무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안녕 자두야 6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여왕의 집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사피엔스 클럽(재)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KBS 네트워크 기획 한국전쟁의 영웅 레클리스(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쉿!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지방자치 30주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특별대담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고향이 보인다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여왕의 집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50 SBS 8 뉴스
8	30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재)	45 MBC 뉴스 25	50 테마스페셜
12	00 KBS 중계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5 리얼 라이브	50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젬
08:00 딩동댕 딩동댕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S 강철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0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궁금한 이야기, 중국-영웅호걸 전〉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3:30 이것이 야생이다2
14:30 클래스 e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7:00 페파 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젬(재)
17:40 타타와 쿠마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PD로그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 반 인심 반 중국 시골 기행 -구이저우 이색 루트〉
21:35 한국기행
〈여름, 쉬어가기 4부 여름, 숲〉
21:55 왔다! 내 손주
22:45 환경 특집 - 기후 재앙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클래스 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 (음 6월 2일 丙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48년생 나가는 것 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 60년생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취할 수도 없다. 72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을 것이다. 84년생 가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을 낳는다. 96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0, 61

丑 37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49년생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 61년생 사세가 종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73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85년생 겉과 속이 꽉 찬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97년생 주저하지 말고 초심의 계획대로 실행하자. 행운의 숫자 : 45, 58

寅 38년생 농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50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74년생 본디대로 대함이 나을 것이니라. 86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98년생 삼사일언한다면 면액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59

卯 39년생 얼핏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51년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75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7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99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0, 65

辰 40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52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64년생 집요해야 이루어질 것이니라. 76년생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복잡다단한 형상을 이룬다. 88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볍게 넘겨도 된다. 00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14, 81

巳 41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만 대처 방안도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53년생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나중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 65년생 심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77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89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01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빛을 발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67

午 4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54년생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거센 강도의 현상일 것이다. 66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78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90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02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76

未 43년생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55년생 새옹지마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의연히 대처하자. 67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79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하다. 91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도다. 03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19, 93

申 44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 하리라. 56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68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80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92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04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자. 행운의 숫자 : 40, 95

酉 45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57년생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69년생 체면은 거두고 합리적으로 임하여야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93년생 열정을 쏟은 가운데에 결실이 보이리라. 05년생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47, 56

戌 46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58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70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82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94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06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64

亥 47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우연함이 아니라 누적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최선을 다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83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95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07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4, 94